



# 보현행원으로 불국이루리 <하> 이경숙 (성남시 수정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주는 것이 가슴아팠다. 그래서 일과 바깥이 버린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염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내가 사춘기때 시련을 많이 겪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했든가. 2년 동안 혹독한 어려움을 겪은 막내는 차츰 제자리를 찾아 자기 길 걸음을 가며 성숙해 가고 있다. 밝은 웃음도 찾고 특유의 익살도 부린다. 다시 부처님을 찾아야 되겠다 고 생각하며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던 중에 불광법회를 찾게 됐다. 보수적이지만 영성 추구하는 법회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법회를 찾던 나로서는 너무도 다행스러웠다.

오랜 가뭄 끝에 단 비를 만난 것처럼 할 일이 많이 생겼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잘 알고 지내던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 법회·봉사에 동참 감사와 기쁨 느껴

“언니, 나는 집에 다니면서 부처님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형편이 안돼서 그렇지.”

그 후로 법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 가능한 절에서의 봉사도 빠지지 않고 동참했다. 불교방송이나 다른 절에서의 법회도 참석하며 신심을 키워갔다. 물론 사(寺)중에서의 교육도 빠지지 않고 동참했다. 이 과정 중에 어려웠던 부처님 말씀에도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다. 아마 부처님 공부하는 일에 더욱 더 매달리게 된 것은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싶은 마음에서 더 열심히 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노력한 성과가 있다는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다. 학교 다닐 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성과가 성적표로 나타나고 사회에서도 내가 성의를 보이면 보일수록 결과가 나타나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았으며 또 뿌듯한 자부심을 안고 살 수 있었다. 결혼해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정성을 쏟으니 좋은 만큼 기도 축축 자라주었고 남편은 어깨에 힘을 주고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도 내 뜻에 빛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성을 보이고 불교 공부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무엇

보다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어려웠고 고약해진 마음을 다스리기도 힘이 들었다. 그 때에는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차츰 불안정했던 마음도 가라앉으며 공부도 더욱 순일하게 됐다. 향을 사르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빛어지는 일이었다. 그동안 살아온 내 모습을 조망해 봤다.

처음께서는 일대사 인연을 해결해 주시게 위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수많은 겁 동안 각기 다른 몸을 받으시면서 수행하고 자기 몸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기꺼이 보시했다. 부처님은 원력보살로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드디어 깨달음을 이루었다. 우리도 누구나 수행하고 육바라미를 실천하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입문 교육, 불교대학 과정을 밟아가며 내 자신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림 · 문병성

## 공부·기도하며 점점 교만심 사라져...

어쩌면 그리고 허물이 많았다고. 어쩌면 그리고 교만하고 잘난 척을 많이 했을까. 부모님이나 남편, 동기간, 이웃들, 친구들과 너무 많은 잘못을 했고 섬세하게 한 일도 많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그친 일은 또 얼마나 많았다고. 그 때마다 그들은 그 같은 시달림에 괴로웠을 텐데 그에 대한 아무런 배려없이 몰아붙이듯 한 것을 반성하게 됐다.

108배를 하고 1080배를 할 때에는 법도 많이 냈지만 눈물도 많이 흘렸다. 처음에는 내 처지가 서러워 눈물을 흘렸고, 이후에는 부끄러운 마음에 또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지나자 차차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 내렸다.

불교는 참회의 종교라고 누군가 얘기해 줬다. 우리는 많은 생애동안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로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나 시비도 참아낼 수 있게 됐다.

사촌 형님 한 분은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서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그럴까를 생각하며 그 말씀이 헛되지 않게 되며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크고 작은 과파가 전해졌다. 꿈에서도 있었고 현실에서도 나타났다. 그럴 때마다 환희심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나뉘어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 전 광덕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많은 법우님들이 슬퍼했고 또 아쉬워했다. 많은 대중을 교화하셨고 일깨워줬던 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비통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더 큰 빛으로 이땅에 오시기를 기원하면서 수행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정진하는 법우들의 모습을 보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보시 중의 가장 큰 보시는 법보시라 했

다.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난다. 차에서 경전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 옆사람이 질문해 온다. 그 때 타종교인을 만날 수도 있고 초심자를 만날 수도 있다. 그 때마다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불자로서 뜻밖의 것이며 그들에게 바른 법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계사에서 장계 합장을 하고 연비를 하고 포교사 품수를 받던 날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다. 물론 그 과정이 아니라도 수많은 분이 전법하고 또 포교한다. 또한 소외된 이웃이나 어려운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선택을 해야되나 말아야 하나 의 문제로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시험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과정을 복습하니 교리가 명확히 기억되고 믿음도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품수를 받고 나서 연수과정을 거치며 포교사의 활약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 육바라미 실천하자 날마다 새롭게 다짐

됐다. 아직도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 부처님을 찾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대중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

누군가 이런 말씀을 했다. 초기에 부처님 제자들은 '사성제'로써 전법했다고. 우리는 그 외 여러 경전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실제로는 전법에 게을리하고 있다고 한다. 아는 것만큼 전하고 역량만큼 가르쳐줄 수 있다. 누구나 전법자요, 누구나 불제자다. 아프고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외롭고 비통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 살고 있는 데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 등등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살기 좋아질 것이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수록 이 국가가 청정해지고 불국토에도 가까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선재동자가 찾은 선지식은 도처에 있다. 처처시불이라 하지 않던가. 우리의 스승 아닌 것이 없다. 사방에 문수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수도룩하다.

아니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 정진에 정진하. 그러나 더 큰 빛으로 이땅에 오시기를 기원하면서 수행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정진하는 법우들의 모습을 보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부디 교만하지 않고 하심하며 보현행원 이루기를 원로로 삼고 방일하지 말아야겠다. 보현행원으로 불국이루리. 마하반야바라밀. (끝)

## 킬레이 수행일기 (上)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난 필자는 가끔 소풍을 절로 가곤 했다. 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은은히 들려오는 종소리, 목탁소리, 그리고 염불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 소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다.

일상생활의 잡다한 일에 시달리다 보면, 잠념으로 산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절을 찾았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 절에 가서는 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 절을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염불을 따라하면서 모르고 지나온 지 수십 년이다.

처음 절을 했을 때는 다리가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승 삼보를 비롯한 일체중생을 한없이 높이고 나를 한없이 낮추는 무아(無我)의 실천 수행이 바로 절이라는 것을 알고는 일념으로 절과 염불을 했다.

요즘은 매일 한번씩 1000배를 할 정도로 절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동시에 일념으로 염불하다 보면 자신



김상규  
경원전문대 E-비즈니스학과 교수

처음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 절과 염불 수행을 하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복을 주는 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불교의 전부인 줄 알았던 나로서는 팔복합탈한 자기 변화다.

때문에 지금도 염불 따라하기, 108배 하기, 1000배 하기 등 기도를 하고 있다. 처음엔 불자로서의 초발심을 내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불자로 변

## 일념 염불·천배정진 '무아' 배워 사후서원으로 교육자의 자세 점검

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기 변화의 과정을 경험했다. 몸이 먼저 하심을 해야 마음도 따라 하심을 하게 된다는 것. 또 일념으로 고승염불을 함으로써 산만한 정신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받는 것 등 절과 염불은 나의 필수적인 수행법이 됐다. 뿐만 아니라 절과 염불은 초심 수행자인 나의 마음자리를 늘 점검하는 지침이 됐다.

사실 요즘은 젊은이들은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하면서 절을 하는 것이 싫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아파 오는 허리를 참기도 하고 아픈 다리를 풀리면서 다시 모이고 하는 반복적인 운동으로 차츰차츰 마음 공부가 깊어졌다.

점점 절도 빨라지고 법도 물 흐르듯 등줄기를 삭혀줄 때면, 흘러내린 땀방울 뒤에 마음은 한없이 시원해졌다. 일 배 일 배 굶히는 육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고, 염불하는 내가 부처를 닮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요즘도 나는 후일이면 절을 찾는다. 스님 법문도 듣고 신심을 내어 부

해있는 내 모습에 뿌듯하다. 어릴 때는 변하는 내 모습에 놀라기까지 한다.

그리고 늘 사시 예를 올리고 있다. 법당에서 들려오는 사후서원은 내 가슴을 울린다. 그 중에서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는 여전한 가슴을 뜨겁게 한다. '내가 과연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되물어 보게 한다.

또 '그간 시대의 요구와 현실적 교육방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지은 업은 없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얼마나 자만하며 살아왔는지' 자기 점검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지난 살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루라도 마음수행을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의 교육적 가치가 나의 가치관과 삶에 영향이 미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학교 교육발전과 청소년 인성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계속)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 대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 정원: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모(약 7명)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관각정자 부대시설 → 제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한 쾌적한 환경 속에 남다른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지광원에서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신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인력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교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 지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지광원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선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법이요 철학적인 법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이 되어 현혹되어 날뛰고 있지만은 물질 문명으로서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 한번 받는 인연은 허공에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바늘 끝에 꿰히기 보다 어려운 인연인데 人生이 자기 인생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자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21세기의 宇宙의 주인공은 인생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宇宙의 조물주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地球村의 주인공인 인생을 창조하는 大道는 오직 參禪입니다. 대중은 어리석은 迷惑에서 벗어나서 生死에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여 大發心하여 금번 보림사 보림선원 철야 용맹정진에 동참하여 철야정진으로 見性悟道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맹정진 기간중에는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최상승 선법문을 교재로 하고 법담 60년 수행하고 제방 선지식과 탁마를 하신 보림사 목산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아 래**

- 일시: 2004년 12월 30일(목) 오후 8시부터 2005년 1월 5일(수) 오전 7시까지
- 장소: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02)914-6187
- 회비: 일반 8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간편복 착용, 방한모
- 교통편: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43,162,1012,1013번 정릉 청수장터 버스 승차, 산강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목선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4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승,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관음시식, 다비식등
· 작법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4년 12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4년 12월 30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경험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